

第 3 回 圖書館週間

講 演 會

講 演 抄 錄



本會 會長의 開會辭에 뒤 이어 講演會는 시작되었다.

지난 4月 12日 本會는 李孝祥 國會議長님, 金亨錫 教授님 및 李鍾文 前事務局長님을 모시고 建設會館 講堂에서 今年度 圖書館週間記念講演會를 開催하였다. 이날의 講演會에는 現職圖書館人, 圖書館學科 在 學生 및 一般市民 300餘名이 參集한 가운데 盛大하고도 뜻 있는 잔치가 베풀어졌다.

이에 세 분 演士님들의 講演要旨를 收錄하여 이 모임을 記念코자 한다. (編輯者)

# 國家의 成長과 圖書館

李 孝 祥  
(國會議長)

‘國家의 成長과 圖書館’이라는 題目을 여러분이 이사람에게 준 意圖를 알듯하다. 그것은 날더러 圖書館에 關하여 工夫를 좀 더 하라는 것일 터이고, 또 圖書館에 關하여 이 사람이 어느 程度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試驗하려는 것일 것이다. 國家의 成長에 對하여 圖書館이 어떻게 이바지하느냐 하는 問題는 여러분 圖書館人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하필 나에게 이 題目을 맡겼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사람도 圖書 乃至는 圖書館에 對하여 多少는 느끼는 點이 있으며, 또한 이 사람이 무엇인지 좀 아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純全히 집에서나 圖書館에서 讀書한 德分인 것이다.

本人은 이번 講演을 부탁 받고서, 10餘年前의 뉴욕 타임스紙의 다음과 같은 論說을 想起하였다.

“萬若 西歐文化가 뉴욕 市內에 單 하나의 建物 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을 地中으로 묻어 버려야 할 경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뉴욕 市 42番街의 뉴욕 公共圖書館임을 選擇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全世界의 文明이 하루 저녁에 壞滅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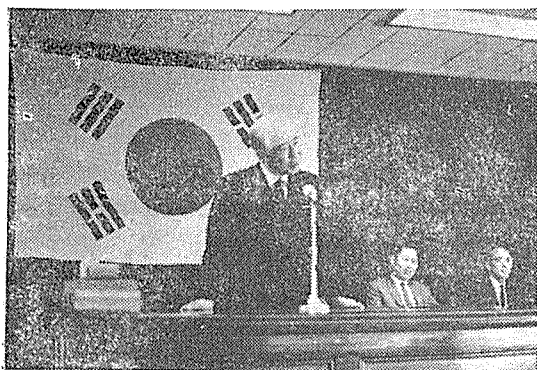
다고 假定하였을 때 最良의 圖書館이 남을 수 있다면, 우리들은 짧은 時間에 그 殘存物을 利用하여 오늘날과 같이 機械·原子·核力의 文化가 高度로 發達한 時代를 再建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에는 바로 圖書館資料를 어떻게 찾아 내서 使用할 것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國民이 가장 빠르게 再建을 成就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の 句節들은 그 表現에 있어서 多少 誇張된 느낌이 없지 않으나, 아무도 否定할 수 없는 眞理를 內包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圖書館이 한 社會나 國家의 成長·發展에 이같이 크게 作用하는 存在인데도, 우리는 至今까지 이 分野에 對하여 너무 等閑하였다. 暫時 우리와 外國의 公共圖書館 分布狀況을 比較하여 보면 이 事實을 곧 알 수가 있다.

우리의 公共圖書館數는 49個館으로서, 이는 國民 57萬名에 1個館이 配當되는 셈이 된다. 美國이 約 2萬名에 1個館, 덴마크는 約 3千名에 1個館, 스웨덴은 約 2千名에 1個館이 돌아 가며, 日本만 하여도 1個 公共圖書館의 奉仕人口가 12萬名에 不過하다.

圖書館의 內容 即 藏書量에 있어서는 더욱 寒心한 實情에 놓여 있다. 앞에 例擧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大概 國民 1人當 1卷에서 3卷의 圖書가 돌아 가며, 가장 不足한 나라에 있어서는 1人當 0.2卷의 藏書量을 確保하고 있는데 反하여 우리는 1人當 0.025卷 即 國民 40名에 책 1卷이 配當되는 셈이다.



우리 民族文化의 優秀性을 力說하시는 國會議長 李孝祥先生님

그러나, 圖書館의 數와 藏書量의 不足보다도 더욱 格적스러운 일이 있다. 그것은, 不足한 圖書館과 不足한 藏書나마 充分히 活用되어야 할 터인데, 많은 圖書館藏書가 먼지를 쓴채 잠자고 있음이다. 그리고, 公共圖書館이라고 하면 一般市民들이 活潑하게 利用하는 곳이라야 할 터인데, 그 곳은 學生들의 工夫房으로서의 구실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이것은 우리 國民의 讀書狀況을 말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圖書館側에서도 責任을 느껴야 할 點이라고 본다. 좀 더 國民에게 積極的으로 作用할 수 있도록 措處를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좀 飛躍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圖書館을 말할 때, 우리의 文化에 關하여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圖書館은 文化의 保存과 傳播를 그 重要한 機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文化는 아주 優秀하다. 우리는至今 西洋文化나 西洋風을 꽤 崇尚하고 있으나, 우리의 것이 그들의 것보다 優秀한 點이 훨씬 많다. 不足한 것은 極히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람이 白耳其에 滯留하고 있을 때, 健康이 좋지 못하여 入院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이 사람의 病室 옆에는 한 巨富의 老人이 入院하고 있었는데 그는 病이 完治된 後에도 退院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람이 그에게 그 까닭을 물어 본즉, 自己 집보다 病院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것이 무슨 말이나, 當身은 아들도 없느냐고 하였더니, 아들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한 아들은 大學教授요, 또 한 아들은 辯護士요, 나머지 한 아들은 陸軍將校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 分家하여 別居하고 있으며, 自己는 婦人과 같이 큰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年前에 婦人이 別世하고, 이제는 집에 食母 한 사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집에 가 보았자 아무 재미 날

일이 없다고 하였다. 차라리 病院에 있으면, 見識있는 學者들도 만날 수 있고 當身과 같은 外國人士도 만날 수 있어서 재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그들 西洋人의 文化인 것이다. 都大體, 自己 집보다 病院이 더 좋게 여겨지는 그 社會, 그 文化를 優秀하다 할 수 있으며, 崇尚하여서 옳을 것인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流行에 關한 問題이다. 요즘을 한창인 實存主義 따위도 한 가지 流行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일어난 西洋에서는 이미 한 20年前의 옛 이야기로 格下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손 떼지 오래인 것을 이제와서 우리가 크게 떠들고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가?

책에 關하여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어떤 外國의 이야기인데, 한 大學의 學生과 教授 사이의 다음과 같은 對話는 우리에게 한 敎訓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先生님은 요즘 한창 人氣를 끌고 있는 某某 小說을 읽어 보셨어요?”

“읽지 못하였네.”

“아니, 그 小說은 이미 몇 週間 동안이나 베스트 셀러로서 팔리고 있는데, 先生님이 그것을 읽지 않아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군요.”

“그런가, 學生은 그러면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었느냐?”

“읽지 못하였어요?”

“그것 참 놀라운 일이군, 그 책은 400年 동안이나 베스트 셀러로서 繼續하고 있지 않은가?”

流行이라는 것이 아주 不必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全部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飲食에 있어서 肉膾나 冷麵 따위 別味와 같은 것이어서, 이들 飲食이 우리의 主食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流行이 우리 生活의 全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圖書館人들, 特히 圖書館學科 學生들에게 신신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文化의 優秀性을 認知하고 圖書館事業을 通하여 그것을 더욱 發展시켜 나가도록 할 것과, 一時的인 流行物보다 恒久的인 價値 있는 資料들을 蒐集하여 國民에게 奉仕하여 주기 바라는 것이다.

## 現代教育和 圖書館

金 亨 錫

(延世大 教授)

權威나 傳統에 立脚한 教育이 過去의 教育이라고 하

講演抄錄

면, 個人이 가진 素質과 能力을 啓發시켜서 現代 市民 社會를 形成시켜 나가고 現實을 받아 들여서 改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教育이 現代教育이라고 할 수 있다.

現代教育에 있어서는, 스승은 弟子의 協助者이지 命令者가 될 수는 없다. 弟子들이 自身의 앞날의 向方을 定해 나갈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는 것이 스승이 取할 姿勢인 것이다. 또한 現代 社會는 時時刻刻으로 變遷하고 있으며, 따라서 學生들이 經驗할 領域 即 吸收하여야 할 知識의 分量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敎師의 個人的 資質이라는 것이 크게 重視될 수 없으며, 學生들로 하여금 文化의 源泉에 直接 接觸할 수 있는 場所와 機會을 提供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場所가 圖書館이요, 그 機會가 圖書館資料와 連結된 課題學習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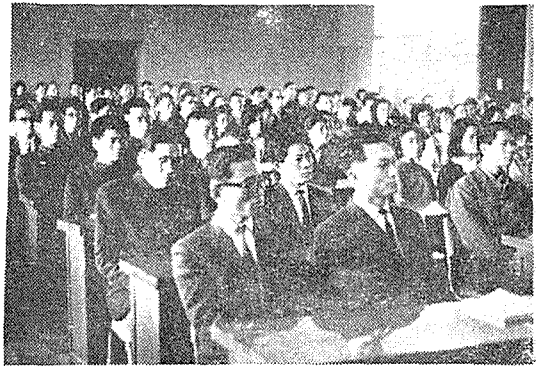
美國教育이 成功한 點은, 그들이 對話教育을 發展시킨데 있다. 自己意見을 主張하면서 남의 意見을 받아들일 줄 아는 態度와 客觀的인 價値가 무엇인가를 發見할 수 있는 能力은 이 對話教育의 所産인 것이다.

우리의 社會가 보다 發展된 社會로 止揚될 수 있게 하기 爲하여서는, 우리의 教育이 ‘언어 가지는 教育’에서 ‘찾아 가지는 教育’ 即 他律的인 教育에서 自律的인 教育으로 그 方法이 轉換되어야 하며, 上級學校에의 進學이나 就職의 手段으로서의 教育이 아니라 바람직한 人格의 形成을 目的으로 하는 教育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教育이 必然的으로 要求하는 것은 좋은 책이요, 훌륭한 圖書館이다. 外國의 著名한 大學들은 우리와 같이 教室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훌륭한 圖書館과 敎會와 寄宿舍를 가지고 있다. 이 三者가 그들의 教育條件이요 基盤인 것이다.



教育思潮의 變遷에 따라 圖書館은 學校教育의 基本要件으로 登場하고 있음을 力說하시는 金亨錫 先生님



演士들의 熱病에 魅惑되고 있는 聽衆

# 現代企業과 圖書館

李 鍾 文

(鍾根堂製藥社 常務)

現代企業에 있어서의 生産 코스트는 大體的으로 原資料費 60%, 人件費·勞務費 30% 및 經費 10%로 보테익다운할 수 있다.

同業者間的 熾烈한 競爭에서 勝利를 가져 오기 爲하여서는 生産 코스트를 減縮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 여기에 있어서, 人件費·勞務費 및 經費는 거의 固定的인 것이므로 손을 댈 수가 없으니, 不可不 原資料費를 줄이는 道理 밖에는 없다.

原資料費의 減縮을 爲하여서는 技術革新과 生産過程의 改善을 이룩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이 일을 爲하여서는 上下 全從業員의 個人的 및 集團의 研究와 訓練이 間斷없이 繼續되어야 하는 것이다.

企業에 있어서 圖書館奉仕가 要求되는 點이 바로 이 點이다. 다시 말하여, 企業體內的 圖書館은 研究와 實驗을 爲한 資料는 勿論 그것에 關한 資料(研究法 및 實驗法)와 또한 訓練을 爲한 資料는 勿論 그것에 關한 資料(訓練法)를 蒐集·整理·提供(消極的提供 및 積極的提供)함으로써, 企業의 目的達成에 크게 이바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企業界는 現在 企業의 現代化를 爲하여 발버둥치고 있다. 企業家들은 企業의 現代化를 爲하여 가진 努力을 傾注하고 있으며, 그 結果 여러 면에서 많은 進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 구름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들은 苦惱하고 있다. 무엇인가 더 根本的이고 恒久的인 方法이 있을 것 같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確實하지가 않다. 이 時點에 우리 圖書館人들이, 우리 特殊圖書館人들이 그들에게 強力히 作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들이 暗中摸索하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圖書館奉仕이기 때문이다.